"자녀 납치" 허위 협박 순천·무안서도 잇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자녀를 납치했다는 허위 협박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안에 사는 박모(여·60)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에 따르면 한 남성이 "공무원 시험준비 중인 당신 아들이 1천만원의 도박 빚을 졌으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다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박씨의 아들(26)은 당시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순천에 사는 서모(여·52)씨 집에도 30대 중반~40대 초반의 목소리로 보이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들이 카지노 도박으로 빚을 졌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차명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알려준 뒤 10분 이내에 현금 1천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박 빚을 미끼로 자녀를 납치했다고 밝히는 등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허위납치 협박사건의 동일범이거나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계좌 잘못입력 송금 유효"

법원, "반환 안된다" 판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됐어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송금의뢰인이 은행 측에 오입금(誤入金)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B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며 K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송금을 하게 된 원인관계의 존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원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수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신속히 이뤄지는 송금거래의 '동적(動的)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B사는 올 7월 초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사 거래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예전 거래회사 S사의 계좌로 1천755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의뢰했고 은행측은 S사 계좌에 해당액을 송금했다.

/연합뉴스

성탄 2題

사찰 찾아 온 산타

광주 원각사에서 성탄절 이브에 열린 '생명나눔 사랑음악회'. 이날 행사에는 신도 등 400여 명의 '산타'가 찾아와 선물꾸러미를 내놨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각사, 백혈병 소녀 돕기 음악회

광주의 한 사찰에 '산타'가 찾아왔다. 사찰에 나타난 '산타'들의 작은 정성은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게 '희망의 빛'을 밝혔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주~신대."

24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각사 마당. 회색 법복 대신 빨간 산타 모자를 쓴 원각사 어린이 합창단 30여 명의 노랫소리가 사찰 안에 울려퍼졌다. 원각사 합창단의 찬불가와 사물놀이, 색소폰, 국악마당, 오카리나 연주도 이어졌다. '급성 골수단구성 백혈병'(AMOL)을 앓고 있는 어린 신도 경희(11·서산초 4년)를 돕기 위한 '생명나눔 사랑음악회'가 열린 것이다.

원각사 도제(46·道諦) 스님은 성탄 이브 날 치료비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신도 등 400여 명의 '산타'가 몰려왔다. 팥죽·불화·전통차 등을 사주며 정성을 모았다. 모금함에도 성금이 쌓였다.

같은 시간, 경희는 화순에 있는 '한사랑의 집 쉼터'에서 투병 중이었다. 자신에게 '선물'을 건네주기 위한 음악회 소식에 고통을 잊었다. 경희의 양쪽 다리엔 지난 10월 손톱 만한 빨간 반점이 생기고,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다. 백혈구 수치는 14만 개로, 일반인(4천~1만 개)보다 40배 정도 많았다. 오른쪽 가슴엔 혈액 투여를 위한 기다란 관을 달았다.

경희는 42일 동안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금은방에 물건을 납품하던 아버지 김태관(45)씨는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뒀다. 어머니(40) 혼자 전국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액세서리를 팔고 있다.

경희는 성탄 다음날인 26일 2차 항암치료를 받는다. 그 후 오빠(경태·15·숭일중 3년)의 골수를 이식받을 예정이다. 확률은 25%. 내년 1월2일

신도·일반인 등 400여명의 '산타' 성금·선물 꾸러미

골수가 일치하는지 검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치료비가 문제였다. 완치까지 3천만~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설명에 부모는 밤잠을 설쳤다. 기적이 필요할 때였다. 도제 스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불현듯 '산타의 선물'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우리 경희, 다시 건강하게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있겠죠?"

이브 날, 경희 선물을 대신 받아든 아버지는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깜짝 산타 1,004명

광주시 동구 소태동 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한 산타들이 아이들에게 과자와 풍선 우산 등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생 등, 복지시설 찾아 선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1천4명의 산타가 광주·전남 곳곳에 난데없이 출현했다. 한 아름 선물을 붉은 자루에 가득 담은 이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돌아다니며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소태동 영아일시보호소. 산타로 변장한 '광주·전남 청년 봉사 연합회' 회원 15명이 과자 꾸러미를 손에 든 채 나타나자,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 58명의 눈이 일순 동그래졌다. 만 3세 미만

광주·전남 3개 단체 불우 어린이들에 과자·학용품 '한아름'

인 아이들, 아직 산타가 누군지 모를 나이지만 허연 수염을 달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연방 깔깔댔다. 미연(여·3·가명)이는 김말숙(여·31)씨의 품이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엄마인 양 고개를 파묻었다. 성현(2·가명)이는 산타들이 건네주는 풍선 우산이 신기한 듯 손을 뗄 줄 몰랐다.

이날 광주·전남 곳곳에 등장한 '깜짝 산타'는 모두 1천4명. '광주·전남 청년단체 협의회'와 '광주·전남 청년 봉사 연합회' '조선대 총학생회' 등 3개 단체 젊은이들이 200여 개 조로 나뉘어, 광주·순천·여수·광양·화순·해남 등 6개 시·군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을 찾았다.

산타들은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들과 몰래 연락을 취해 어린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미리 파악했다. 케이크와 크레파스는 모든 가정에 선물했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린이 한 명당 2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따로 구입했다.

이들은 멋진 산타가 되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조선대 서석홀 4층 대강당에 모여 공부를 하기도 했다. '울면 안돼' '창 밖을 보라' 등 캐럴을 입을 맞춰 연습했고, 간단한 율동을 배웠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동전숨기기' '잘린 줄 붙이기' 등 마술도 익혔다.

조선대는 청년들에게 산타 옷을 만들라며 200만원을 후원했고 '아이안과' '금강산여행사'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운동본부' 등도 300여만원을 보탰다.

'2006 사랑의 몰래 산타'를 총 지휘한 김태진 준비위원장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추위에 얼었던 몸이 일시에 녹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참 〈7010〉 김종두

게임장서 '대박' 터뜨린게 되레 화근

쌍나팔

○…게임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던 40대 회사원이 "오류가 발생했다"며 게임을 제지한 종업원과 주먹 다툼을 벌여 경찰서 행.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께 서구 풍암동 D게임장에서 '다빈치 게임'으로 1시간 만에 325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종업원 권모(38)씨가 기계를 꺼버리자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것.

○…종업원 권씨는 "이날 기계 고장으로 1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이용요금이 9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으며, 본래 시간당 200여 장인 상품권 수익도 세배 이상 터졌다"고 진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